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학생용]

1. 인권이란?

-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고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입니다.
- **인권침해란?** 인권 침해는 국가 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것**

2. 대학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적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이것도 인권침해인가요?

-출처 : 충북대 「관습의 탈을 쓴 인권침해」, 대학신문

<얼차려주기>

“선배가 후배에게 얼차려 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얼차려를 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스스로 원하지 않는 육체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얼차려나 기합을 주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 가해질 경우 폭행죄, 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적인 장기자랑·춤연습>

“신입생들에게 춤 연습을 시키는 것도 인권침해인가요?”

네, 인권침해가 맞습니다.

신입생들에게 강제로 장기자랑이나 춤 연습을 시키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로 장기자랑이나 춤 연습을 시키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과행사 강제 참여>

학교 행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건데 인권침해인가요?

네. 인권침해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과 행사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지하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의 자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또한 학과행사가 수업과 중복되어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은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학 내 인권침해(선후배간 악습) 사례

- 출처: 교육부, 조선일보, sbs리포트+, 중앙일보, 매일신문, MBN 등

<사례1>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

후배들이 인사를 하지 않아서, 말대답을 해서,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 선배에게 연락하는 법, 90도 인사 강요, 상황별 인사법, 복장(모자, 슬리퍼, 이어폰 등 금지) 등을 규정하는 학과 규칙 공지 등

<사례2>

대학가 '민폐' 졸업반지

졸업예정 선배에게 기념품 제공을 위한 강제 금품 모금은 강제 모금 논란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선의의 선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례3>

H대 응원동아리는 동아리 내 기수에 따라 선배 이름과 역할 외우고, 재시험 치기. 동아리 전통이란 이유로 야외에서 얼차려를 받고, 술자리에서 수습단원들에게 쓰레기, 동전, 가래침 등이 들어간 폭탄주를 강요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례4>

W대 사범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라는 명목으로 3월초 꽃샘추위에 신입생들에게 막걸리를 뿌렸고, 담당교수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례5>

충청지역 모 대학 졸업생들이 'OO대 체육교육과의 썩은 전통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제보에 의하면 반복되는 구타와 기합으로 한 학기에 평균 1~3명이 자퇴나 휴학을 한다. 특히 학과 조교와 학생회장이 각종 학외비, 행사비, 교수 해외여행경비, 논문지도비 등을 강제로 요구한다며 '돈 낼 능력 없으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폭언까지 했다. 심지어 이들은 교수들의 60세 환갑잔치까지 챙겨줘야 했다며 호소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5. 이렇게 해주세요.

1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호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 대학(원)생 상호간 물리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은 안 됩니다.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은 삼가주세요.
- 지나친 구애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주세요.
-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가해·목격자가 되었을 경우 인권센터로 문의해주세요.

2 교수님의 학문적 권위를 존중해주세요.

- 수업시간이나 그 외 시간에 질문을 할 때, 그리고 면담일정 등을 잡을 때는 사전 메일약속 등 공지된 방법을 따르고 기본적 예의를 지켜주세요.

3 교직원에게 문의할 때는 기본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성(性), 인종, 피부색, 문화적 차이, 정치적 지향, 지역,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존중해주세요.

- SNS를 포함한 온오프라인에서 직·간접적인 차별, 적의 혹은 폭력의 선동이 될 증오의 고취, 특정 개인 및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은 안 됩니다.

5 OT, MT, 워크샵, 세미나, 졸업여행 등의 행사에서 서로 간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고 행동해 주세요.

- 성희롱·성폭력, 술을 권하는 행위, 기합, 얼차려 등을 주는 행위나 선후배 간 복종적 상하관계 강요는 안돼요!!
- 학교 행사 신청 후 불참 시 참석여부를 주관기관에 알려주세요.